지역 메 아 리

금산 청소년문화의집 찾아가는 음악회 개최

금산 청소년문화의집 청소년 운영위원회 및 동아리 40여명이 지난 12일 김제 신세계병원을 방문해 오랜 병원생활에 지친 환우 및 가족들을 위해 작은 음악회를 열어 주위를 훈훈하게 했다.

이날 '나팔소리 금관악기' 청소년 동아리팀은 바이올린, 섹소폰, 오케스트라 연주와 테너 솔로 등 그 동안 갈고 닦은 기량을 선보이며 음악으로 함께 소통하고 공감하는 시간을 가졌다.

또한 환우들 역시 아름다운 선율을 들으며 오랜 투병생활에 지친 몸과 마음을 치유하고 활기가 넘치는 청소년들과 함께 간식을 나누어 먹으며 대화의 시간을 가지는 등 따뜻한 시간을 보냈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문화예술회관 여름방학 특선 '더 쉐도우'

김제문화예술회관에서 오는 25일 오후 7시 30분 여름방학을 맞이해 어린이를 위한 특별프로그램으로 빛과 그림자로 떠나는 세계여행 '더 쉐도우' 공연이 펼쳐질 예정이다.

상상력과 도전 정신을 기반으로 한 다양한 체험이 주는 용기와 희망, 그 안에서 찾게 되는 자신감과 스스로의 무한한 잠재력을 키우며 국내 최초로 만들어진 공연으로 핸드 쉐도우와 바디 쉐도우로 펼쳐진다. /김제=곽노태 기자

김제시는 지난 12일 2층 소회의실에서 ㈜제이엠(대표이사 문주영)과 투자 협약을 체결했다.

제이엠, 지평선산업단지 투자

김제시와 MOU · 분양계약 체결
총 47억원 투자, 32명 고용 창출 기대

김제시는 지난 12일 2층 소회의실에서 지평선일반산업단지에 투자하는 ㈜제이엠(대표이사 문주영)과 투자협약 및 분양계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식에는 박준배 김제시장과 온주현 시의회 의장, 고미정 시의회 경제복지위원장, 박두기 시의회 의원과 기업 대표이사 및 임원 등 10여명이 참석하여 ㈜제이엠의 투자를 환영하였다.

2001년 설립한 ㈜제이엠은 자동차 베어링 등을 생산하는 유망 중소기업으로 해외 수출을 위해 규모를 확장하고자 지평선일반산업단지에 투자를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지평선산업단지는 현재 71개 업체가 가동 중이거나 건축 중이고 13개 업체가 설계 등 준비 중으로 인근 타 시·군 농공 및 산업단지에 비해 활발한 성장세를 보이고 있으며, ㈜제이엠의 1만283.2㎡(약 3,110평) 분양계약으로 83.3%가 분양 완료되었다.

㈜제이엠의 문주영 대표이사는 "2017년부터 확장을 계획하였으나 지속적인 경기 침체로 선뜻 투자를 결정하기 어려웠다. 이번 해외수출 계약으로 지평선산업단지로 이전을 확정하게 되어 전 직원이 기뻐하고 있으며 꾸준히 지금처럼 노력하여 자동차 부품 업계에서 ㈜제이엠의 이름을 알릴 수 있도록 하겠다."고 포부를 밝혔다.

온주현 시의회 의장은 "지금 같은 경기 침체 속에서 투자를 결정하기까지 ㈜제이엠이 얼마나 고심하였을지 잘 안다. 시의회에서도 시와 협력하여 이번 투자로 인해 더 큰 기업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협력하겠다."고 전했다.

또한 박준배 김제시장은 "지평선일반산업단지 투자를 결정해주신 ㈜제이엠의 대표이사를 비롯한 모든 직원들께 김제 시민을 대표하여 감사드리며 어려운 여건 속에서 투자하시는 만큼 최선을 다해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며 투자에 대한 감사의 뜻을 전했다. /김제=곽노태 기자

황재남 사진작가의 초청 강연이 '황재남 작가와 사진으로 보는 완주 이야기'라는 주제로 오는 15일부터 17일, 19일 3일간 완주 고산도서관에서 열린다.

황재남 사진작가 초청 강연

완주 고산도서관서 오늘부터 19일까지

완주군 고산면에서 활동하고 있는 황재남 사진작가의 초청 강연이 오는 15일부터 17일, 19일 3일간 고산도서관에서 열린다.

지난 12일 완주군에 따르면 최근 '완주 100경 그곳에 가고 싶다'를 주제로 사진전을 성황리에 마친 황 작가는 고산면 소향리 안남마을에 거주하고 있으며, 안남사진갤러리 대표이자 사진작가로 활동하고 있다.

이번 강연은 '황재남 작가와 사진으로 보는 완주 이야기'라는 주제로 작가 및 안남사진갤러리 소개, 완주·안남마을 사람들 이야기, 완주의 풍경을 주제로 총 3차시로 진행될 예정이다.

서진순 도서관평생학습사업소장은 "지역 사진작가의 작품을 주제로 작가와 함께 완주의 생활·문화·역사 이야기를 생생하게 나누는 시간을 가짐으로써 지역주민들의 자긍심을 고취시키고, 아름다운 내 고향을 더욱 소중하게 되새기는 좋은 기회가 되기를 바란다"고 말했다.

고산도서관 관계자는 "황재남 작가의 지역사진들은 후세에 역사적 사료가 되기도 한다"며 "우리 군의 변화하는 모습을 한 눈에 비교해 볼 수도 있고 고증자료로 활용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간의 자료들을 모아 도서관에 비치해 많은 사람들이 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이 강연에 관련한 자세한 사항은 완주군립도서관 홈페이지를 참고하거나 고산도서관(290-2647)로 접수 및 문의하면 된다.

/완주=이중복 기자

부량면, 노인사회활동 참여자 혹서기 건강교육 및 간담회 실시

김제시 부량면(면장 임영하)은 지난 12일 복지회관 회의실에서 노인사회활동 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어르신 13명을 대상으로 '여름철 건강관리 및 안전사고 예방교육' 및 오찬 간담회를 실시하였다. 이날 교육에서는 여름철 폭염에 따른 건강관리 교육을 보건소 건강증진과에서 실시하였으며, 폭염대비 사업참여 요령 및 위기사항 대처방법과 안전수칙 및 행동요령에 대해 교육하고, 냉방시설이 잘 갖춰져 있는 경로당 무더위쉼터 시설을 이용해 건강하고 쾌적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당부했다.

또한 교육이 끝난 후에는 관내식당에서 상반기 동안 지역정화활동에 애쓴 노고를 격려하는 오찬 간담회를 실시했다.

간담회는 노인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사기 진작과 상호유대감 강화를 위해 마련되었으며, 원활한 사업 운영을 지속할 수 있도록 애로사항 등을 청취하는 시간도 함께 가졌다. /김제=곽노태 기자

'가 · 나 · 다 일자리 프로젝트' 추진

완주군, 180억 투입… 1만2500개 신규일자리 창출

완주군이 '가·나·다 일자리 프로젝트'를 가동해 1만2500개의 신규일자리를 창출하는 등 다각적인 정책을 추진한다.

가나다 일자리 프로젝트는 '가'고 싶은 일자리, '나'의 일자리, '다'양한 일자리의 줄임말로, 구직자와 재직자 지원 신규일자리 창출을 위한 완주군의 일자리 정책 브랜드다. '가나다'는 일자리 정책을 체계적이고 장기적으로 추진한다는 의미와 함께, 기초부터 충실하고 내실있게 추진한다는 의미도 내포하고 있다. 지난 12일 완주군은 오는 2020년부터 2023년까지 180억원의 예산을 투입해 1만2500개의 신규 일자리를 창출하는 가·나·다 일자리 프로젝트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젝트는 침체된 지역산업의 활성화와 4차 산업시대 미래산업 일자리 창출 동력을 확보하기 위해 4대 분야 10대 중점과제 20개 세부사업을 확정해 추진하게 된다.

우선 일자리 통합 컨트롤 타워를 구축하는 ▲일자리 플랫폼, 지속적인 고용창출 생태계 조성 ▲지속가능한 일자리, 취업 취약계층 취업지원 ▲모두의 일자리, 근로자 근속유지와 지역정착 유도 ▲행복한 일자리의 4대 전략으로 추진될 예정이다.

군은 향후 10년간 최대 100억원의 일자리 기금을 조성하고 일자리 재단을 설립 하는 등 일자리 지원체계를 일원화·전문화해 일자리 정책의 안정성과 지속성을 확보한다는 방침이다. 이후 지속적인 고용창출 생태계 조성을 위해 지역 우수 중소기업을 선정·지원하고, 핵심인력의 장기근속을 지원하는 한편 공유 비즈니스 지원센터를 조성해 영세기업의 경영 지원도 강화한다. 이외에도 온라인 취업상담, 완주형 취업성공 패키지, 청년 취업자 지역정착 지원, 학자금 이자 지원을 통해 청년 구직자의 지역 중소기업 취업을 활성화한다.

중소기업 근로자 주택 구입 자금, 자녀 교육비, 개인연금, 잡 웰페어 1사 1동아리 및 교통카드 지원 등을 통해 완주군 재직 근로자의 근속유지와 지역정착도 지원한다.

군은 기본 4년, 최대 10년간 추진할 가·나·다 일자리 프로젝트의 안정적 재원 마련을 위해 기초혁신프로젝트, 지산맞 공모사업 등으로 20억원 규모의 국비를 확보하고, 연간 55억원의 일자리 예산을 군비로 추가 편성할 계획이다. /완주=이중복 기자

김제시, 푸드플랜 중장기 종합계획 수립 용역 착수보고회

김제시는 지난 11일 시청 대회의실에서 관계공무원, 로컬푸드 농협, 학교급식, 생산자, 소비자단체 대표 4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김제시 먹거리 종합전략 수립을 위한 '김제시 푸드플랜 중장기 종합계획' 착수보고회를 가졌다

지역단위 푸드플랜은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로 지역 먹거리의 생산·유통·소비에 이르는 전과정을 연계하여 시민에게 건강한 먹거리를 보장하고, 고령농, 중소농, 여성농 등 영세농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에 따른 소득창출, 먹거리 취약계층의 복지실현을 위해 로컬푸드 활성화, 학교·공공급식 확대 등 지역내에서 먹거리를 선순환하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전략이다.

이번 착수보고회는 과업지시에 따라 김제시 먹거리 실태조사, 정책 및 현황분석, 실행과제 도출 및 세부계획 수립, 민관거버넌스 구축, 푸드플랜 종합계획 수립 등 김제시 여건에 맞는 가장 효율적인 푸드플랜을 수립할 수 있는 추진계획 청취와 참석자들의 의견을 수렴하는 자리가 되었다.

용역수행 업체인 지역농업네트워크 협동조합(대표 김종안)은 푸드플랜의 주민 공감대 형성을 위한 공청회, 각 주체별 면담, 다양한 계층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을 거쳐 김제시 지역단위의 실효적인 먹거리 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박준배 김제시장은 먹거리정책 관련부서에서도 푸드플랜이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적인 협력관계를 유지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제=곽노태 기자